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을 통해서 본 민주시민교육의 시사점

정 재 요*

•요 약•

이 논문은 ‘나의 소원’에 나타난 백범 김구의 문화사상과 평화사상을 검토하고, 백범의 사상이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고찰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백범의 문화사상과 평화사상의 기저에 놓여 있는 백범의 교육관에 주목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목록에 줄 수 있는 백범 사상의 함의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한다. 연구 과정에서 백범의 문화 및 평화사상은 민족 중심의 폐쇄적인 가치관을 비판하며, 각 민족이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바탕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문에서는 백범의 문화사상과 관련하여 포용사회 지향성, 세계시민주의에 입각한 다문화교육, 사상의 자유에 기반을 둔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수준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교육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백범의 평화사상과 관련해서는 문화국가 이념에 입각한 평화지향적 안보·통일교육, 세계평화의 수준에서 기획되는 통일교육, 적극적 평화구현을 위한 구조적·문화적 폭력 인식, 정치적·경제적 균등을 주제로 한 시민교육의 실시, 대동사상에 입각한 홍익인간의 지향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주제어 : 백범 김구, 나의 소원, 문화사상, 평화사상, 민주시민교육

I. 머리말

한국 민주주의가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鞏固化)’로 상징되는 정치사회의 질적인 도약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 글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된 지금, 겨레의 스승인 백범 김구 선생(1876~1949. 이하 ‘백범’으로 표기)을 현시대로 호출하여 그의 사상

* 진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 E-mail: jyo@cue.ac.kr

이 품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시사점’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백범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광복 80주년에 걸맞은 민족해방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거니와, 민족교육가이기도 했던 그의 사상이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에 중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필자 나름의 판단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백범이 우리 민족에게 하고 싶은 말의 요령을 담은 ‘나의 소원’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백범 스스로가 언급하고 있듯이 ‘나의 소원’은 백범이 믿고 있는 우리 민족철학의 대강령(大綱領)을 기록한 것으로서 그가 지녔던 사상의 진수가 스며들어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¹⁾

한편, 본고가 작성된 2025년의 주목할 만한 문화 현상 중 하나는 ‘케이팝 대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라는 넷플릭스(NETFLIX) 작품을 통해 한국문화의 힘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K드라마·K뷰티·K푸드 등의 콘텐츠로 발현된 한류의 흐름이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는데, 이러한 K컬처(K-Culture)의 발흥 속에서 새삼 세계 무대의 주연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오늘을 기대했던 백범의 소원이 널리 재조명되고 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라는 ‘나의 소원’ 속 문구가 K팝을 위시한 K컬처의 전 세계적인 발흥과 함께 널리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 한류에 주목하고 있는 문화의 개념은 그 폭이 다소 좁고, 발전 방향 또한 일방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²⁾ 대중문화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제반 분야가 좀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철학의 대강령을 기록한 ‘나의 소원’을 경유하여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고찰해보는 작업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발전전략, 우리 민족이 취해야 할 국가전략의 일단을 모색해보는 과정이기도 하다.³⁾

이러한 기획에 따라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본고에서와 같이 ‘나의 소원’을

1) 백범의 사상을 검토하고,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고찰하기 위해 ‘나의 소원’에 주목해 보는 것은 다음 『백범일지』 ‘저자의 말’ 일부 구절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끝에 붙인 ‘나의 소원’ 한 편은 내가 우리 민족에게 하고 싶은 말의 요령을 적은 것이다. 무릇 한 나라가 서서 한 민족이 국민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가 되는 철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 우리는 우리의 철학을 찾고 세우고 주장하여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 날이 우리 동포가 진실로 독립정신을 가지는 날이요, 참으로 독립하는 날이다. ‘나의 소원’은 이러한 동기, 이러한 의미에서 실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품은, 내가 믿는 우리 민족철학의 대강령(大綱領)을 적어본 것이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은 이 한 편을 주의하여 읽어 주셔서 저마다의 민족철학을 찾아 세우는 데 참고를 삼고 자극을 삼아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김구, 『백범일지』, 서울: 우성문화사, 1984, p.4.

2) 형사요,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 정치사상: 국제정치관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7권 1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p.78.

3) 정경환,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론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48집, 한국동북아학회, 2008a, p.120.

통해 백범의 문화사상과 평화사상을 고찰하고 이들 사상의 기저에 놓여있는 백범의 교육관에 주목하여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한 연구는 잘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백범을 주제로 한 다음과 같은 국내의 선행연구들, 이를테면 『백범일지』의 부록으로 게재된 ‘나의 소원’에 대한 텍스트 분석,⁴⁾ 백범의 교육사상과 교육활동을 재조명한 연구,⁵⁾ 백범의 민족주의와 정치사상 담론에 관한 연구,⁶⁾ 백범의 문화사상⁷⁾ 및 평화사상⁸⁾을 다룬 연구 등은 본 논문의 구상과 집필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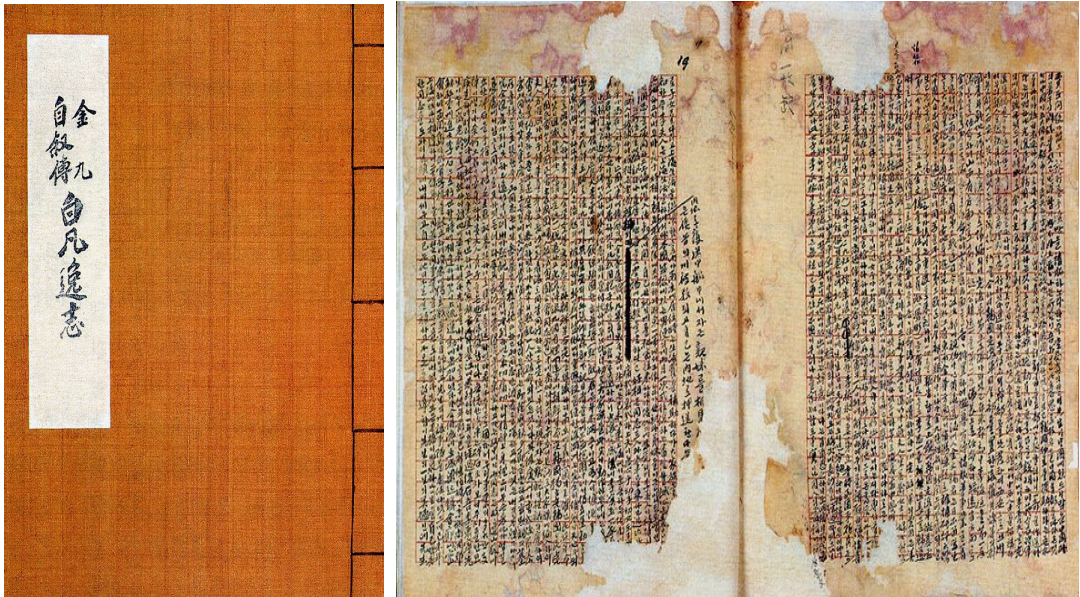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과 연구기획에 따라 아래의 II장에서는 본고의 이론적 배경으로 기능하는 ‘나의 소원’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그간 학계에서 다루어진 민주시민교육의 목록을 개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살펴보는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다. III장에서는 ‘나의 소원’을 통해서 본 민주시민교육의 시사점을 백범의 문화사상과 평화사상을 경유하여 고찰해보도록 한다. 여기서는 문화사상과 평화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백범의 교육관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포용사회, 다문화교육, 정치교육, 문화·예술교육, 안보·통일 교육, 적극적 평화관, 평등성의 자각, 대동사상에 입각한 홍익 인간의 지향 등의 테마가 백범사상과 민주시민교육의 지평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IV장에서는 백범 사상이 지닌 오늘의 교육적 가치를 배경으로 한 연구의 요약·정리 및 향후 과제 등을 언급하면서 논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
- 4) 방민호, “김구 자서전 『백범일지』와 이광수 ‘윤문’의 의미”, 『춘원연구학보』, 제17호, 춘원연구학회, 2020; 양윤모, “『백범일지』를 통해 본 역사적 김구와 기억된 김구”, 『인천학연구』, 제42호,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25.
 - 5) 한민석, “백범 김구의 교육활동에 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교육사상학회, 2015; 정재요·성장환, “백범 김구의 교육사상 연구: 사회민주주의적 교육관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논총』, 제33권 2호,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17.
 - 6) 문중섭, “백범 김구의 민족주의사상과 세계화시대의 민족주의”,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4집 2호, 한국시민윤리학회, 2011; 최한규, “백범 김구의 정치사상 담론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연구』, 제22집 제2호,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13; 박균열, “백범 김구의 건국관”, 『윤리연구』, 제100호, 한국윤리학회, 2015.
 - 7) 정경환,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론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47집, 한국동북아학회, 2008a; 엄연석, “김구의 인문적 민족주의에 내포된 문화철학적 목표”, 『인문연구』, 55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형사요,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 정치사상: 국제정치관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7권 1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 8) 정경환, “백범 김구의 평화론에 관한 연구”,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집 1호,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b; 정경환, “백범 김구의 평화사상과 한반도 통일”, 『통일전략』, 제11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정재요·윤순갑, “소극적·적극적 평화이론과 백범사상의 평화지향성”, 『OUGHTOPIA』, 제33권 제3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8; 전일욱, “백범 김구의 평화론에 관한 고찰”, 『평화학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1.

II. 이론적 검토

1.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

주지하다시피 ‘나의 소원’은 『백범일지』에 부록 형식으로 실려있는 짧은 분량의 글이다. 이 글은 1929년 상하이(上海)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집필된 『백범일지』 상권, 1943년 임시정부가 이전한 충칭(重慶)에서 집필된 『백범일지』 하권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⁹⁾ 본고의 주된 분석 대상인 ‘나의 소원’은 어려운 국한문 혼용 형식의 친필본 『백범일지』를 현대 한글 문체로 번역하여 1947년 12월 15일 국사원에서 발간한 『백범일지』(학계에서는 이를 ‘국사원본’이라고도 한다)에 처음으로 게재된 텍스트이다.¹⁰⁾



출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s://www.khs.go.kr>)

〈그림 1〉 백범일지 친필본 표장과 본문

9) 이들 친필본 『백범일지』(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소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차 사료인 동시에 독립운동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1947년 국사원본 간행 50주년을 맞이한 1997년 6월 12일, 보물 제1245호로 지정되었다. 관련 이미지는 〈그림 1〉 참조.

10) 양윤모, 앞의 논문, 2025, pp.25-26.

다소 투박한 문체를 지닌 『백범일지』와는 달리 ‘나의 소원’은 백범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매우 정련된 글이라 할 수 있다.¹¹⁾ 이 글은 1) 민족국가, 2) 정치 이념, 3)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소재목(章)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백범 스스로 “내가 품은, 내가 믿는 우리 민족철학의 대강령(大綱領)을 적어본 것”임을 밝혔듯이 각 장에는 건국에 대한 비전과 우리나라의 발전전략, 우리 민족이 취해야 할 국가전략의 일단을 모색한 백범의 사유가 잘 나타나 있다.

‘나의 소원’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만한 사항은 1947년 국사원본 『백범일지』에 등장한 백범의 사유와 전략들이 1947년 이전에 발표되었던 여러 문건과 매체들을 통해 이미 유사한 수준에서 표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지·동포 제군에게 보내는 공개통신’(1939. 5. 10),¹²⁾ ‘한국독립당의 건립과 광복운동의 장래’(1940. 8. 25),¹³⁾ ‘독립 자주통일의 조국을 건설합시다: 삼천만 동포에게 고함’(1945. 12. 30)¹⁴⁾ 등과 같은 문건에서는 완전한 자주독립으로 통일된 조국 건설, 가장 진보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경제·교육의 균등,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세계적 대가정의 건립, 국가 질서와 세계 평화를 지지하기 위한 강력한 국방군의 건립과 같은 건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들이 제시되어 있다.¹⁵⁾ 그런데 이러한 백범의 사유와 전략들은 ‘나의 소원’을 통해서 종합·고양되고, 보다 정련된 언어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백범의 건국에 대한 비전과 우리나라의 발전전략, 우리 민족이 취해야 할 국가전략은 그의 문화사상 및 평화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¹⁶⁾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백범이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술하겠지만 ‘나의 소원’은 교육의 힘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기획의 텍스트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나의 소원’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할 사항은 바로 춘원 이광수의 개입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일부 학계에서는 1947년 국사원본 『백범일지』의 발간과정에서 춘원 이광수

11) 김구 지음,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서울: 돌베개, 2002, p.423.

12) 김구 지음, 『白凡 金九先生 言論集(상)』, 서울: 나남출판, 2004, pp.66-75.

13) 위의 책, pp.92-98.

14) 1945년 12월 30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이 글은 1945년 12월 27일 저녁 8시부터 15분간 서울중앙방송국을 통해 방송된 것으로서, 한국독립당 요인이자 백범의 최측근으로 활동한 엄항섭(1898~1962)이 대독한 백범의 글이다. 김구 지음, 도진순 엮음, 『백범어록』, 파주: 돌베개, 2007, pp.58-63.

15) 박균열, 앞의 논문, 2015, p.317.

16) 이와 관련하여 정경환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백범)의 최종적인 정치활동의 목적지는 문화가 꽃피는 평화로운 세계공동체의 형성이었다. 그의 이상국가론은 한 마디로 문화국가론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의 문화국가론의 핵심적 내용은 바로 평화주의에 있다. 평화주의는 문화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이자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경환, 앞의 논문, 2011, p.14.

의 윤문이 들어간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특히 ‘나의 소원’의 경우 단순한 윤문이 아닌 춘원 자신의 사상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거나 대필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존재한다.¹⁷⁾ 확실히 ‘나의 소원’은 이광수가 김구의 자서전 저자명 아래 그리고 그의 승인 아래 자신의 생각을 삽입해 놓은 흔적이 역력한 텍스트라는 것이다.¹⁸⁾ 물론 이광수의 문체와 유사하다든지, 이광수의 사상적 배경이 작용하였다든지, 또 이광수의 소설적 맥락으로 국사원본의 체계가 잡혔으므로 이광수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학문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것들이며, 상당 수준 사실에 입각한 것일 수도 있다.¹⁹⁾ 그럼에도, 본 논문에서는 ‘나의 소원’에 깃들어 있는 백범의 사상은 1947년 국사원본 『백범일지』가 간행되기 이전에도 이미 다양한 문건과 매체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 백범 스스로가 ‘나의 소원’이 첨부된 『백범일지』를 자신의 책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 등에 주목하여 동 문건을 백범의 사상이 농축되어 있는 ‘백범의 1차 사료’로 간주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검토

민주주의의 내용 파악이 쉽지 않듯,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다.²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내용을 둘러싼 공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진보와 보수진영에서도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저마다의 콘텐츠와 전략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²¹⁾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계의 개념 규정 또한 다양한 수준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로는 “스스로 존엄을 지키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비판적 사유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공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역량을 갖춘 헌법적 인간상을 기르는 교육”²²⁾ “민주주의

17) “김구 ‘나의 소원’에 이광수의 흔적이 보인다”, 「오마이뉴스」(온라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3317 (검색일: 2025. 10. 10)

18) 방민호, 앞의 논문, 2020. p.138.

19) 양윤모, 앞의 논문, 2025, p.28.

20) 민주시민교육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폭넓게 관찰할 수 있는 교육적 방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를테면 유럽연합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에 해당하는 용어로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 시민정치교육(civic/political education), 시민도덕교육(education civique/morale), 시민과 혹은 공민과(civics)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의미론의 수준에서 독일의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에 대체로 부응하는 용어로 시민교육(civic education), 시민학습(civic learning), 시민성교육(citizenship education), 사회과(social studies)를 들 수 있다. 정창화·허영식, 『문답식 민주시민교육 60選』, 파주: 법문사, 2021, p.3.

21) 강재규,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법적 근거”, 『일감법학』, 제54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p.8.

22) 정근식,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와 의미. 과제”, 『교육정책포럼』, 386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에게 필요한 민주주의 관련 지식과 사고 능력, 민주적 가치와 태도, 참여와 실천 같은 시민 역량을 교육하는 활동”²³⁾ “주권의 명확한 소지자이자 실질적인 행사자로서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과 태도를 지닌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²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공적 사안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적 개인을 공적 시민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관련된 민주시민교육은 개방성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이해, 진리에 대한 존중과 비판적 판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교육적 지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²⁵⁾ 그래서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책임지는 시민성(personal citizenship), 참여하는 시민성(participatory citizenship),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성(justice-oriented citizenship) 등과 같은 공적 가치를 지향한다.²⁶⁾

저명한 민주주의 이론가인 로버트 달(Robert Dahl)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자기 통치’이며 통치받는 사람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원리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구성원 모두에게 참가 자격과 능력을 부여하며, 공동체가 추구할 정책이나 나아갈 방향을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동등한 존재로 간주되어야 한다.²⁷⁾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원칙으로 달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교육·학습되어야 하고 정치적 과정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계몽된 이해 원칙(The principle of enlightened understanding)’을 제시한다.²⁸⁾ 이러한 계몽된 이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민주시민교육이 조명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²⁹⁾

2025, p.5.

23) 박상준, “12·3 내란 이후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교육비평』, 제57호, 교육비평, 2025, p.22.

24) 강재규, 앞의 논문, 2023, p.3.

25) 심성보 외,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 서울: 살림터, 2019, p.37.

26) Westheimer, Joel and Kahne, Joseph, “What Kind of Citizen? The Politics of Educating for Democracy”,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41, no. 2, 2004, pp.237-269; Biesta, Gert J, *Learning democracy in school and society: Education, Lifelong and the Politics of Citizenship*, Rotterdam: Sense Publishers, 2011, pp.28-31.

27) 김인춘, “문화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 스웨덴 민주주의와 대중시민교육(Folkbildning)”,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19호,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17, p.125.

28) Dahl, Robert A,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pp.111-112.

29) 이와 관련, 1976년 독일에서 도출된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는 계몽된 이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정식화(定式化)된 독일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으로서, 공동체가 요구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점을 사회적으로 합의한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강제성의 금지, 논쟁성의 유지, 이해관계 인지와 정치적 행위능력의 강화 원칙으로 구성된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성보 외,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서울: 북멘토, 2018; 허영식,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관한 담론과 함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계의 개념 규정과 지향점을 개략적인 수준에서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민주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없다. 이에 본 절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계에서 제시된 일부 민주시민교육의 목록을 개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간략히 살펴보는 수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검토에 같음하도록 하겠다.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은 과연 어떤 내용·주제를 다루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있다. 학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관련 목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시민의 권리와 책임, 민주적 가치와 덕성, 비판적 사고와 토론, 공동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참여·행동³⁰⁾

▷ 헌법·정치교육, 인권·평화교육, 세계시민·다문화교육, 정보사회의 민주주의 교육³¹⁾

▷ 포용사회를 지향한 민주시민교육(포용교육),³²⁾ 분단된 나라의 공통 귀속감을 강화하고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까지 고려한 통일교육³³⁾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주제를 조망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인정교과서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 목차를 참고해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우선 초등학교(5~6학년) 교재에서는 민주주의(모두가 참여해요), 선거(내 힘으로 뽑아요), 미디어(믿을 만한 정보는 어떻게 찾을까요?), 인권(우리는 모두 소중해요), 다양성(차이가 차별이 될 수 없어요), 노동(사람들은 일을 해요), 평화(평화롭게 살아요), 연대(우리 함께 해요), 정의(정의롭게 살아요), 안전(안전하게 살아요) 등을 차례에서 다루고 있다. 고등

의,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11권 제4호,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18; 조상식,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 협약과 그 쟁점에 대한 교육 이론적 검토”, 『교육철학연구』, 제41권 제3호, 한국교육철학학회, 2019; 정재요, “2·28 민주운동 서사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고찰: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30집 1호, 대한정치학회, 2022 등 참조.

30) 박상준, “민주시민교육 내용체계의 구성 방향”, 『초등교육연구』, 제31집 1호, 전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2020, p.53.

31) 정근식, 앞의 글, 2025, p.8; 김용찬, 『민주화·세계화 시대의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5, pp.5-9.

32) 민주시민교육의 하부구조로서의 포용교육이 취급할 수 있는 문제 영역의 보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포용국가 혹은 포용사회의 범위;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사회권 사이의 긴장 관계; 이주문제와 관련된 경제 혹은 국경의 정당성과 개방의 필요성; 특정한 집단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정당한 사회적 폐쇄의 구분(보기: 아동노동의 금지) 등. 정창화·허영식, 앞의 책, 2021, p.94.

33) 전득주·김수근·요르그 볼프,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서울: 학문사, 1994, pp.201-204.

학교 교재에서는 1부 시민과 가치에서 인권과 시민, 다양성과 가치, 공감과 연대, 자연과 환경, 평화와 공존을, 2부 시민과 제도에서 민주주의와 참여, 노동과 경제, 언론과 미디어, 시민사회와 안전을 다루고 있다.³⁴⁾ 이들 모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계몽된 이해(enlightened understanding)’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목록으로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국가의 일반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³⁵⁾ 일반시민 조례와 학교시민 조례로 구분할 수 있는 각 지자체별 민주시민교육 조례들은 전반적으로 조례의 목적,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의, 조례의 기본원칙,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육의 위탁,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대동소이하다.³⁶⁾ 이와 관련, 몇몇 지역 조례에 나타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25. 1. 1.] [경기도조례 제8254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도민의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34) 장경훈 외, 『초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5~6학년)』, 경기: 경기도교육청, 2021; 허진만 외, 『고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경기: 경기도교육청, 2021.

35) 2025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대구와 울산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일반시민 조례’ 혹은 ‘학교시민 조례’ 중 하나 이상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방론이지만,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제정 및 폐지의 흐름은 각 지자체 제도권 정치의 지형 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는 분명 지역별 정치색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등의 권력관계 및 정치성향이 일정수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동 주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김주호·김다봄, “조례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정치적 배경, 전개 양상, 주요 쟁점”, 『경제와 사회』, 제147호, 비판사회학회, 2025 참조.

36) 김주호·김다봄, 위의 논문, 2025, p.446.

-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5. 3. 27.] [서울특별시조례 제9505호, 2025. 3. 27., 일부개정]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5.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와 이해,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의사 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 조정과 문제해결 등의 역량과 자질 함양
6. 선거의 의미·기능,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이해, 공약의 비교·분석 및 토론 등 선거법령에 따른 선거 전반에 관한 내용
7.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민주화운동의 역사
8.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 등 보훈의 가치 및 독립·호국·민주의 역사에 관한 교육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3. 8. 1.] [광주광역시조례 제6180호, 2023. 8. 1., 타법개정]

제7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교육
2.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제도의 이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
3.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적 갈등 조정 및 문제해결 등에 관한 역량과 자질의 교육
4.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및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 참여방식 등 학교민주주의 구현에 관한 교육
5.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
6. 인권, 환경, 노동, 평화, 통일, 성 평등, 미디어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87호, 2023. 11. 10., 타법개정]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노동·연대·환경·생명·생태·평화 등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그림 2〉 일부 지역 조례의 민주시민교육 내용 조항

이처럼 민주시민교육 조례에는 학계에서 논의된 것과 유사한 수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헌정주의에 대한 인식적 토대 위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제도,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 공유적 가치와 인권·노동·환경·평화·통일과 같은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사회문제를 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수업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 및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여, ‘나의 소원’에서 드러난 백범의 문화사상과 평화사상이 줄 수 있는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적 시사점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Ⅲ. ‘나의 소원’을 통해서 본 민주시민교육의 시사점 고찰

1. ‘나의 소원’ 속 백범의 문화사상과 민주시민교육적 함의

필자는 백범의 사유가 집적된 ‘나의 소원’이 ‘교육의 힘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기획의 텍스트’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요약 명제를 검토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나의 소원’에 나타난 백범의 문화사상 및 문화와 교육에 관한 백범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것에 내재한 민주시민교육적 함의를 조명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백범은 ‘나의 소원’ 전반에 걸쳐서 문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문화는 현실적인 삶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는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전 인류적 차원의 행복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한

다.³⁷⁾ 백범은 사랑과 평화로 이어지는 최선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고 믿었으며, 이것이 우리 민족이 수행하여야 할 최고의 임무이자 사업인 것으로 간주했다(이하 인용문에서의 진하게 표시는 필자).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고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요, 이것이 인류의 현 단계에서는 가장 확실한 진리다. ...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중계,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나의 소원 中 (김구·도진순, 앞의 책, 2002, pp.425-426)>

비록 백범은 자신의 사상을 ‘문화국가’라는 개념을 통해 체계적으로 논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국가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문화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백범의 사상을 ‘문화국가’라는 개념으로 인식할 때 백범 사상에서의 문화국가는 현대 시민헌법에서 파악하는 문화의 개념, 즉 문화적 활동에 대한 시민의 자유와 자율을 전제로 하여 보다 높은 문화가치의 실현을 지향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⁸⁾ 백범의 문화사상은 문화가 곧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가 곧 문화임을 인정하는 인식적 토대 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문화(more culture for more people)’를 제공한다는 문화민주주의의 이론적·현실적 지향과도 상통한다.³⁹⁾

이상에서 말한 것은 내가 바라는 새 나라의 용모의 일단을 그린 것이거니와 동포 여러분! ... 앞으로도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렇게 사모하도록 하지 아니하려는가. 나는 우리의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이 마음을 가질진대 아니 이루어지고 어찌하라! 나도 일찍 황해도에서 교육에 종사하였거니와 내가 교육에서 바라던 것이 이것이었다. <나의 소원 中 (김구·도진순, 앞의 책, 2002, p.433)>

백범은 자신의 문화사상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교육의 힘’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백범이 구상한 ‘최선의 문화’는 배타적이지도 않고 침략적이지

37) 엄연석, 앞의 논문, 2008, p.292.

38) 정재요·성장환, 앞의 논문, 2017, pp.22-23.

39) 김인춘, 앞의 논문, 2017, p.136.

도 많은 인문적 가치를 여러 민족에 보편화하고,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그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는 것이었다.⁴⁰⁾ 그렇다면 최선의 문화를 이끄는 교육의 힘은 공동체성에 입각한 배려와 나눔, 포용사회의 지향, 세계시민성에 기초한 다문화교육 등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에 백범의 문화사상이 가져다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기도 하다.

최고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기로 사명을 삼은 우리 민족의 각원(各員)은 이기적 개인주의자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입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으로 낙을 삼는 사람이다.** <나의 소원 中(김구·도진순, 앞의 책, 2002, p.432)>

산에 한 가지 나무만 나지 아니하고, 들에 한 가지 꽃만 피지 아니한다. 여러 가지 나무가 어울려서 위대한 삼림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백 가지 꽃이 피어서 봄들의 풍성한 경치를 이루는 것이다. <나의 소원 中(김구·도진순, 앞의 책, 2002, p.428)>

어떤 민족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지 않고, 개별 문화공동체의 가치는 그 나름의 독자적인 가치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적 지평에서 백범은 다양한 민족의 존재를 정원에 비유한다. 다양한 민족들도 정원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꽃들이 함께 어울려 공존하는 것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¹⁾ 백범은 ‘나의 소원’을 통해 민족에 대한 강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지만⁴²⁾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수주의(國粹主義)의 틀에 갇힌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부터 먼저 깨우치고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고자 했던 실천적이고 긍정적인 사유로 보아야 한다.⁴³⁾ 백범의 문화사상에서는 민족 이익과 세계 이익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수렴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은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이 누구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포용사회를

40) 엄연석, 앞의 논문, 2008, p.314.

41) 문중섭, 앞의 논문, 2011, pp.163-164.

42)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피와 역사를 같이하는 민족이란 완전히 있는 것이어서”, “철학도 변하고 정치, 경제의 학설도 일시적이거니와 민족의 혈통은 영구적이다.”, “오늘날 소위 좌우익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흥망성쇠의 공동 운명의 인연에 얹힌 한 몸으로 이 땅 위에 사는 것이다.”

43) 박균열, 앞의 논문, 2015, p.327.

지향하고,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꽃을 피워내는 세계시민주의적 차원의 다문화교육으로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나의 소원’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화국가를 꽃 피울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즉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국가공동체의 조건으로 ‘사상의 자유에 기반을 둔 정치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나의 소원’에 깃든 백범의 문화사상에서는 최선의 문화를 꽃피우게 하는 좋은 민주주의가 바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교육의 완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⁴⁴⁾

우리가 세우는 나라에는 유교도 성하고, 불교도 예수교도 자유로 발달하고, 또 철학을 보더라도 인류의 위대한 사상이 다 들어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 이러하고 야만 비로소 자유의 나라라 할 것이요, 이러한 자유의 나라에서만 인류의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문화가 발생할 것이다. <나의 소원 中(김구·도진순, 앞의 책, 2002, pp.428-429)>

백성들의 작은 의견은 이해관계로 결정되거나, 큰 의견은 그 국민성과 신앙과 철학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문화와 교육의 중요성이 생긴다. 국민성을 보존하는 것이나 수정하고 향상하는 것이 문화와 교육의 힘이요, 산업의 방향도 문화와 교육으로 결정됨이 큰 까닭이다. 교육이란 결코 생활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주와 인생과 정치에 대한 철학**이다. 어떠한 철학의 기초 위에, 어떠한 생활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곧 국민교육이다. 그러므로 **좋은 민주주의 정치는 좋은 교육에서 시작될 것이다. ...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과 국민교육의 완비**다. 내가 위에서 자유의 나라를 강조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나의 소원 中(김구·도진순, 앞의 책, 2002, pp.430-432)>

이처럼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억압과 통제가 없는 민주주의를 현실의 정치체도로 간주하고 있는 백범의 사유를 문화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자유를 전제로 한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에 사회적 이슈를 교실에서 다루는 (이르테면 논쟁문제 수업과 같은) 정치교육의 활성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을 배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수업이나 활동과 같은 공적인 장에서 다양한 생각과 태도, 관점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청된다는 뜻으로 백범의 사유가 재전유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⁵⁾

44) 정경환, 앞의 논문, 2008a, pp.111-112; 최한규, 앞의 논문, 2013, p.119.

45) 설규주·정원규,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원칙 연구: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시론적 제안과 적용”, 『시민교육연구』, 제52권 2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20, p.239.

또한 이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 교원의 정치적 자유의 일반적 금지’라는 논리가 통용되고 있는 오늘의 교육에 대한 ‘인식의 바로잡음’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재조명될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무정향·무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정치적 쟁점을 다룰 수밖에 없다.⁴⁶⁾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좋은 정치교육에서 좋은 민주주의 정치가 시작될 수 있다는 백범의 문화사상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⁴⁷⁾ 이렇게 백범의 문화사상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녔던 본래적(本來的) 의미, 즉 외부 세력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한다는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려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를 복원할 것을 현세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교사가 외부의 압력이나 민원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율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라는 요청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⁸⁾

백범의 문화사상을 통해서 본 민주시민교육적 함의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사항은, 문화·예술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층위에서 보다 섬세하게 다루는 오늘의 시사점에 관한 것이다. 백범은 ‘나의 소원’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력을 자유로 발휘하여 빛나는 문화를 세우고, 이 지구상의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아, 그것을 먼저 우리나라에 실현하는 것”⁴⁹⁾을 우리 민족이 하여야 할 최고의 임무로 설정했다. 백범이 언급한 것처럼, 문화에 빛을 내어주는 것은 정신력을 자유로 발휘하는 예술의 영역일 것이다. 그래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나, 더 많은 국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설계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관점의 다양성이 공존하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⁵⁰⁾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민주시민교육으로 포섭하는 기획에 관한 시사점은 ‘나의 소원’ 속 백범의 문화사상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

46) 안성경,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인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함의”,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7, p.35.

47) 정상우,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44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5, p.10.

48) 박상준, 앞의 논문, 2025, p.47.

49) 김구·도진순, 앞의 책, 2002, p.425.

50) 김인춘, 앞의 논문, 2017, p.134.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백범의 문화사상이 지닌 궁극적인 지향점은 다른 아닌 평화였다. 백범이 ‘나의 소원’에서 교육의 힘을 바탕으로 한 문화국가를 구상한 것도 결국에는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에 따른 것이었다. 전술했듯이, 백범의 문화사상에서는 세계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적 수단(교육)에 바탕을 둔 문화국가 건설이 구상되고 있으며, 각 민족마다 최선의 문화를 가지고 그 문화의 기초 위에서 각각의 민족이 서로 돕고 사는 세계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우리 민족이 높은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를 선도하고 이끌어보자는 것이 백범이 기획한 민족적 대강령의 요체였다고 본다.⁵¹⁾ 이러한 인식에 따라, 다음 절에서는 백범의 ‘평화사상’과 그것에 내재한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적 시사점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2. ‘나의 소원’ 속 백범의 평화사상과 민주시민교육적 함의

백범은 흔히 ‘보수·우파 계열의 민족주의자’로 구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는 혼란했던 시대가 낳은 탁월한 ‘평화사상가’이기도 했다.⁵²⁾ ‘나의 소원’ 속 백범의 평화사상에 관한 대략적인 윤곽은 오늘날 널리 회자되고 있는 다음의 유명한 구절을 통해서 고찰할 수 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나의 소원 中(김구·도진순, 앞의 책, 2002, p.431)>

‘문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사상을 드러내고 있는 위 구절의 면밀한 독해를 위해서는 요한 갈통(Johan Galtung)이 제시한 소극적·적극적 평화의 틀을 빌려오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갈통은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해오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이며 현재적인 폭력인 ‘직접적 폭력(direct violence)’, 사회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누군가에게 악용되어 사회 구성원들을 억압하고 해를 끼치는 경우에 나타나는 폭력

51) 전일옥, 앞의 논문, 2021, pp.15-18.

52) 정재요·윤순갑, 앞의 논문, 2018, p.65.

인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 한 사회에 통용되는 문화적 요소(이데올로기, 종교, 언어, 전통, 과학, 예술 등)를 통해 직접적·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폭력인 ‘문화적 폭력(cultural violence)’으로 폭력을 유형화했다.⁵³⁾ 그러면서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를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에서 달성 가능한 평화라고 보았으며,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폭력의 보다 확장된 형태인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되어야 비로소 달성 가능한 평화라고 보았다.⁵⁴⁾

이러한 틀에 따라 위의 인용 구절을 검토해보면, 백범의 평화사상은 남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강력(強力)의 확보와 관련된 소극적 평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하는 부력(富力)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적극적 평화 모두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까지 행복을 주는 ‘문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구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현대의 소극적·적극적 평화이론의 쟁점들을 균형 있게 아우르는 동시에 또 그것을 넘어서는 보다 고양된 평화학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⁵⁵⁾ 이하에서는 ‘나의 소원’ 속 백범의 평화사상에 내재한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적 함의를 조금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우선 백범은 소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직접적 폭력의 제거와 함께 타민족·타국가에 대한 침략과 전쟁을 반대했다. 백범은 ‘나의 소원’을 통해 적극적 평화의 달성 못지않게, 직접적·물리적 폭력의 제거와 전쟁 부재를 중시하는 완전한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 민족의 주요한 임무로 언급했다.⁵⁶⁾ 백범은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고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주장은 완전한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우고 유지할 수 있는 강력(強力)을 보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는 국가공동체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와 국방을 주제로 한 교육적 콘텐츠가 민주시민교육의 굳건한 축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민주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안보와 국방교육은 문화국가의 이념에 입각한 평화지향적인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침략주의에 입각한 방어 목적의 군사력 유지, 평화적 문제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전쟁을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선예후병(先禮後兵)’의 이념 등은 백범의

53) Galtung, Johan,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6, no. 3, 1969, pp.167-191; 정재요, “평화이론과 헌법: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평화의 비판적 분석”, 『정치·정보연구』, 제20권 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17, pp.146-150.

54) Galtung, Johan,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s,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1996, pp.32-33; 정재요·윤순갑, 앞의 논문, 2018, p.49.

55) 정재요·윤순갑, 위의 논문, 2018, p.65.

56) “우리 민족으로서 하여야 할 최고의 임무는, 첫째로 남의 절제도 아니 받고 남에게 의뢰도 아니하는 **완전한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김구·도진순, 앞의 책, 2002, p.425.

평화관에 그대로 부합되는 안보·국방교육의 내용이 될 것으로 본다.⁵⁷⁾

또한 백범이 완전한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우리 민족의 주요한 임무로 언급한 것은, 분단국가의 평화통일과 통일 이후의 평화로운 공동체 구상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적 함의의 수준에서 고찰될 수 있다. 백범은 분단 체제의 극복을 통해서 진정한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던 민족주의자이자 평화사상가였다. 백범에게 있어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통일은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를 세우기 위한 일차적인 전제가 되며,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 평화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⁵⁸⁾ 그리고 이것은 평화통일로 상징되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자주독립이, 곧 인류 평화와 직결된다는 사유이기도 하다.⁵⁹⁾ 포용성의 가치를 전제로 우리 민족의 이익과 한반도의 통일, 세계 평화 간의 일체론을 백범은 자신의 평화사상의 틀에서 펼쳐내고 있는 것이다.

인류 세계에는 새로운 생활 원리의 발견과 실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담당한 천직이라고 믿는다. 이러하므로, 우리 민족의 독립이란 결코 삼천리 삼천만의 일이 아니라, 진실로 세계 전체의 운명에 관한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인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마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기에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 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나의 소원 中(김구·도진순, 앞의 책, 2002, pp.425-426)>

이러한 사유가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바로 세계평화의 지평에서 모색되는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을 민주시민교육의 틀에서 적극 펼쳐내라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각급 학교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다루는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규 교육과정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의 층위에서 펼쳐지는 평화적 통일교육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시행하는 일은 통일에 소극적인 학생과 시민이 많아지고 있는 오늘날,⁶⁰⁾ 백범의 자주독립국가 구상과 관련하여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

57) 정경환, 앞의 논문, 2008b, p.61; 형사요, 앞의 논문, 2023, pp.62-63.

58) 최한규, 앞의 논문, 2013, pp.126-127; 전일옥, 앞의 논문, 2021, pp.12-13.

59) 실제로 백범은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평화통일을 추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47년 3월 20일 용산 원효로에 '건국실천원양성소'를 설립했다. 건국실천원양성소는 1947년에 출범하여 1949년 해체될 때까지 약 2년 동안 모두 9기에 걸쳐 약 800여 명의 입소생을 교육시키게 된다. 백범 스스로도 건국실천원양성소의 소장을 맡으면서 자주통일국가의 필요성과 청년들의 정신강화 교육을 담당하였다. 한민석, 앞의 논문, 2015, p.164. 이러한 백범의 교육자로서의 모습은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이 수행해야 할 통일교육에 대한 사표(師表)로서 재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다. 사건으로, 앞의 인용문에서 나타난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으니 그것을 공상이라고 하지 마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기에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라는 부분은 한반도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새로운 문명사회의 표준에 관한 백범의 탁월한 예견 구절이 아닐까 싶다. 다시 말하면, 지구상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평화통일 후 기존의 북한 주민들을 포용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위대한 사상, 혹은 새로운 문명 사회의 표준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백범의 소망으로 위의 구절이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분단된 나라의 공통 귀속감을 강화하고,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 과정까지를 고려한 민주시민교육의 하부구조로서의 통일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백범이 후세대의 시선에서 탁월한 평화사상가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이상에서 살펴본 소극적 평화에 대한 비범한 통찰 말고도, 구조적·문화적 폭력의 제거와 관련된 적극적 평화관을 지속적으로 개진했기 때문이다. 적극적 평화이론으로 수렴되는 백범의 평화사상은 ‘나의 소원’ 곳곳을 통해 발견할 수 있지만, 본 절에서는 아래에서 인용한 부분에만 한정하여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모든 계급 독재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철학을 기초로 한 계급 독재다. 수백 년 동안 이조 조선에 행하여 온 계급 독재는 유교, 그 중에서도 주자학파의 철학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다만 정치에 있어서만 독재가 아니라 사상·학문·사회생활·가정생활·개인생활까지도 규정하는 독재였다. 이 독재정치 밑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는 소멸되고 원기는 마멸된 것이다. ... 그러므로 **어느 한 학설을 표준으로 하여서 국민의 사상을 속박하는 것은 어느 한 종교를 국교로 정하여서 국민의 신앙을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옳지 아니한 일이다.** <나의 소원 中(김구·도진순, 앞의 책, 2002, pp.427-428)>

나는 우리 동포를 향하여서 부르짖는다. 결코 독재정치가 아니되도록 조심하라고, **우리 동포 각 개인이 십분의 언론 자유를 누려서 국민 전체의 의견대로 되는 정치를 하는 나라를 건설하자고**, 일부 당파나 어떤 한 계급의 철학으로 다른 다수를 강제함이 없고, 또 현재

60) 이와 관련, 초·중·고 775개교, 총 79,706명을 대상으로 통일부와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한다.

* 통일 필요 : △’22년 57.6% → △’23년 49.8% → △’24년 47.6%

통일 불필요 : △’22년 31.7% → △’23년 38.9% → △’24년 42.3%

* 필요 이유 : △전쟁 위협 해소 38.4% △같은 민족 14.4% △선진국 진입 14.1%

불필요 이유 : △사회적 문제 발생 29.4% △경제적 부담 22.2% △정치제도 차이 18.7%

* 북한 인식 : △협력·도움 대상 34.3% △경제·적대 대상 63.2%

통일부 홈페이지(<https://www.unikorea.go.kr>) 보도자료, “「2024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담긴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2025 참조.

의 우리들의 이론으로 우리 자손의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속박함이 없는 나라, 천지와 같이 넓고 자유로운 나라, 그러면서도 사랑의 덕과 법의 질서가 우주 자연의 법칙과 같이 준수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를 건설하자고. <나의 소원 中(김구·도진순, 앞의 책, 2002, p.430)>

백범이 모든 계급 독재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철학을 기초로 한 계급 독재라고 보았던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여하한 형태의 구조적·문화적 폭력에 대한 예민한 인식과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 중요함을 피력하기 위해서였다. 하나의 세계관이 독점적인 타당성을 주장하고 공세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이것은 공동체의 평화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⁶¹⁾ 갈통은 폭력이 주로 문화적 폭력에서 시작하여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 폭력으로 변진한다고 보았는데,⁶²⁾ 백범 역시 사상·학문·이데올로기·관습·전통 등의 형식을 띤 문화적 폭력이 구조적·직접적 폭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통찰했다. 이에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은 공적 이슈나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대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은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논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백범의 평화사상가적인 면모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상황을 개선하여 적극적 평화를 달성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백범은 높은 문화의 힘을 한없이 가지고 싶어했지만, 어디까지나 자주독립의 문화국가는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한 강력(強力)과 함께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한 부력(富力)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평등가치에 터 잡은 이러한 백범의 평화사상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표방하는 삼균주의(三均主義)에 기반을 둔 새로운 민주국가 건설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래에 인용한 구절은 문화적 수단에 의한 적극적 평화실현에 관한 백범의 사유가 깃든 것으로, 오늘의 평등교육·복지교육에도 중대한 시사를 제공해준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61) 정창화·허영식, 앞의 책, 2021, p.116.

62) 요한 갈통 지음, 이재봉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p.20; 정재요, 앞의 논문, 2017, p.147.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우리 국조(國祖)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나의 소원 中(김구·도진순, 앞의 책, 2002, pp.431-432)>

인의(仁義)와 자비, 사랑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물질의 분배 또한 고르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는데 장애가 되기 마련이다. 단군은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치이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인격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것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⁶³⁾ 백범 또한 진정한 세계의 평화를 홍익인간의 지평에서 사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의 물질력으로 모두가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발달’을 언급했다. 이것이 근로대중의 복지와 가장 진보된 민주주의를 실현해줄 수 있다는 것이 백범의 뜻이었다.⁶⁴⁾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시선에서 이 같은 백범의 뜻은 정치적·경제적 균등을 주제로 한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 점에서, 일부 지역 조례에 인권·노동·평화·성평등·연대 등의 가치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규정한 것은 백범의 평화사상의 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여겨진다.

현행 교육기본법에서도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⁶⁵⁾ 이러한 현행법의 해석에 홍익인간에 대한 백범의 사유, 즉 현재의 물질력으로 모두가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발달’과 세계평화에의 기여가 참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극단적인 부의 불균형으로 빚어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폭력을 완화 및 제거하고, 근로대중

63) 엄연석, 앞의 논문, 2008, p.318.

64) 이러한 백범의 뜻은 ‘나의 소원’에서는 다소 문학적이고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합시다. 국민 전체의 균등한 생활을 확보하지 못하면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진보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주장합니다.” <독립 자주통일의 조국을 건설합시다: 삼천만 동포에게 고향 中>, “독립의 광영은 어떤 지도자 한 정객의 광영이 아니라 오로지 전 민족의 행복을 보증하고 지지하는 데에 있느니 만큼 **한족(韓族)의 광복은 곧 근로대중의 복지에 빛나야 할 것입니다.**” <건국에 공헌하라 中> 김구 지음, 도진순 엮음, 앞의 책, 2007, p.61; 김구 지음, 『白凡 金九先生 言論集(하)』, 서울: 나남출판, 2004, p.19.

65)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복지에 빛나도록 하는 적극적 평화교육은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강조되는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 실현” 역시 다음과 같은 백범의 평화지향적 사상, 이를테면 민족국가와 세계질서 간의 유기체적인 결합에 주목한 민족이익과 세계평화 간의 일체론,⁶⁶⁾ 세계일가주의에 기반하여 민족국가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세계대동주의(世界大同主義) 등과 함께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⁶⁷⁾ 이렇게 평등성의 자각, 대동사상에 입각한 홍익인간의 지향은 ‘나의 소원’ 속 백범의 평화사상을 통해서 도출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의 또 다른 목록을 구성하고 있다.

〈표 1〉 ‘나의 소원’을 통해서 본 민주시민교육의 시사점

백범의 문화사상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사회 지향성 • 세계시민주의에 입각한 다문화교육 • 사상의 자유에 기반을 둔 정치교육 (논쟁문제 수업의 활성화) • 민주시민교육의 수준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교육
백범의 평화사상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국가 이념에 입각한 평화지향적 안보·국방교육 • 세계평화의 지평에서 기획되는 통일교육 •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구조적·문화적 폭력 인식 • 정치적·경제적 균등을 주제로 한 시민교육의 실시 • 대동사상에 입각한 홍익인간의 지향
<p style="text-align: center;">◇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 ⇒ 교육의 힘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기획의 텍스트</p>	

IV. 맺음말

지금껏 인류의 역사는 자유의 신장, 인권의 증진, 민주주의의 지평 확장을 향해서 진화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이 대세가 된 지금, 인류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공존·공영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⁶⁸⁾ 이와 관련하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은 우리 민족을 포함한 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첩경이 될 수 있을 것

66) 정경환, 앞의 논문, 2008b, p.57; 정경환, 앞의 논문, 2011, p.27.

67) 문중섭, 앞의 논문, 2011, p.174; 최한규, 앞의 논문, 2013, p.118; 형사요, 앞의 논문, 2023, pp.74-77.

68) 정경환, 앞의 논문, 2011, p.16.

이다.

이 같은 인식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나의 소원’에 나타난 백범의 ‘문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사상이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연구 결과, 백범의 문화사상과 평화사상은 민족 중심의 폐쇄적인 가치관을 비판하며, 각 민족이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바탕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⁶⁹⁾ 이것은 21세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형성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주었는데 본문에서는 포용사회 지향성, 다문화교육, 정치교육, 문화·예술교육, 안보·통일교육, 적극적 평화교육, 홍익인간 지향성 등의 수준에서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백범 사상의 시사점을 탐색해보았다.

물론 본 논문의 연구주제로 설정한 백범의 사상에 대해서는 순혈주의(純血主義)적인 성격이 내재한 종족적 민족주의가 담겨있으므로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⁷⁰⁾ 문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사상의 실천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략이 미진하다는 점, 사상 자체가 너무 당위론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어서 현실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 등과 같은 학계의 비판도 엄연히 존재한다.⁷¹⁾ 그럼에도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거의 백범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백범의 상(像)을 그려내고 그의 사상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백범의 사상을 박제화시켜서 볼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이론적·역사적 자원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⁷²⁾

필자는 대중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백범의 사상이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시론적 원칙을 세우는 데 활용되거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국가의 일반법 제정(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에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된 지금-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보다 웅숭깊은 민주시민교육의 전개를 위해, 백범의 사유와 실천이 널리 재조명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고를 맺도록 하겠다.

69) 한민석, 앞의 논문, 2015, p.169.

70) 문중섭, 앞의 논문, 2011, p.173.

71) 정경환, 앞의 논문, 2011, pp.37-38.

72) 한민석, 앞의 논문, 2015, p.170. 물론 이러한 작업에서는 시대적 맥락과 사상적 지향의 차이, 백범 사상의 현대적 적용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시대적·논리적 비약의 문제, 텍스트 해석의 불확실성 등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재규,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법적 근거”, 『일감법학』, 제54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 김구 지음, 도진순 엮음, 『백범어록』, 파주: 돌베개, 2007.
- 김구 지음,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서울: 돌베개, 2002.
- 김구 지음, 『白凡 金九先生 言論集(상)』, 서울: 나남출판, 2004.
- 김구 지음, 『白凡 金九先生 言論集(하)』, 서울: 나남출판, 2004.
- 김구, 『백범일지』, 서울: 우성문화사, 1984.
- 김용찬, 『민주화·세계화 시대의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5.
- 김인춘, “문화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 스웨덴 민주주의와 대중시민교육(Folkbildning)”,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19호,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17.
- 김주호·김다분, “조례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정치적 배경, 전개 양상, 주요 쟁점”, 『경제와 사회』, 제147호, 비판사회학회, 2025.
- 문중섭, “백범 김구의 민족주의사상과 세계화시대의 민족주의”,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4집 2호, 한국시민윤리학회, 2011.
- 박균열, “백범 김구의 건국관”, 『윤리연구』, 제100호, 한국윤리학회, 2015.
- 박상준, “12·3 내란 이후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교육비평』, 제57호, 교육비평, 2025.
- 박상준, “민주시민교육 내용체계의 구성 방향”, 『초등교육연구』, 제31집 1호, 전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2020.
- 방민호, “김구 자서전 『백범일지』와 이광수 ‘운문’의 의미”, 『춘원연구학보』, 제17호, 춘원연구학회, 2020.
- 설규주·정원규,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원칙 연구: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시론적 제안과 적용”, 『시민교육연구』, 제52권 2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20.
- 심성보 외,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서울: 북멘토, 2018.
- 심성보 외,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 서울: 살림터, 2019.
- 안성경,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인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함의”,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7.
- 양운모, “『백범일지』를 통해 본 역사적 김구와 기억된 김구”, 『인천학연구』, 제42호,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25.
- 엄연석, “김구의 인문적 민족주의에 내포된 문화철학적 목표”, 『인문연구』, 55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 요한 갈통 지음, 이재봉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 장경훈 외, 『초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5~6학년)』, 경기: 경기도교육청, 2021.
- 전득주·김수근·요르그 볼프,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서울: 학문사, 1994.
- 전일옥, “백범 김구의 평화론에 관한 고찰”, 『평화학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1.
- 정경환,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론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48집, 한국동북아학회, 2008a.
- 정경환, “백범 김구의 평화론에 관한 연구”,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집 1호,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b.
- 정경환, “백범 김구의 평화사상과 한반도 통일”, 『통일전략』, 제11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 정근식,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와 의미. 과제”, 『교육정책포럼』, 386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2025.

- 정상우,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44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5.
- 정재요, “평화이론과 헌법: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평화의 비판적 분석”, 『정치·정보연구』, 제20권 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17.
- 정재요, “2·28 민주운동 서사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고찰: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30집 1호, 대한정치학회, 2022.
- 정재요·성장환, “백범 김구의 교육사상 연구: 사회민주주의적 교육관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논총』, 제33권 2호,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17.
- 정재요·윤순갑, “소극적·적극적 평화이론과 백범사상의 평화지향성”, 『OUGHTOPIA』, 제33권 제3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8.
- 정창화·허영식, 『문답식 민주시민교육 60選』, 파주: 법문사, 2021.
- 조상식,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 협약’과 그 쟁점에 대한 교육 이론적 검토”, 『교육철학연구』, 제41권 제3호, 한국교육철학학회, 2019.
- 최한규, “백범 김구의 정치사상 담론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연구』, 제22집 제2호,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13.
- 한민석, “백범 김구의 교육활동에 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교육사상학회, 2015.
- 허영식,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관한 담론과 합의”,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11권 제4호,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18.
- 허진만 외, 『고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경기: 경기도교육청, 2021.
- 형사요,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 정치사상: 국제정치관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7권 1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 Biesta, Gert J, Learning democracy in school and society: Education, Lifelong and the Politics of Citizenship, Rotterdam: Sense Publishers, 2011.
- Dahl, Robert A,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 Galtung, Johan,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6, no. 3, 1969.
- Galtung, Johan,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s,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1996.
- Westheimer, Joel and Kahne, Joseph, “What Kind of Citizen? The Politics of Educating for Democracy”,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41, no. 2, 2004.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3317 (검색일: 2025. 10. 10)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s://www.khs.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 통일부 홈페이지 <https://www.unikorea.go.kr>.

【 Abstract 】

Insights into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rom Kim Gu's *My Wish*

Jung, Jaeyo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ultural and peace thought of Kim Gu (Baekbeom) as presented in *My Wish* and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his thought for contemporar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Kim Gu's educational philosophy, which underlies his cultural and peace ideas,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his thought for the content and framework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out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Kim Gu's cultural and peace thought criticizes ethnocentric and closed value systems, while emphasiz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humankind based on the ideal of each nation living independently and supporting one another as fully sovereign states. Based on this, several implications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ere derived. In relation to Kim Gu's cultural thought, these include the orientation toward an inclusive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grounded in cosmopolitanism, political education founded on freedom of thought, and cultural and arts education conducted at the level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ith regard to his peace philosophy, the study identified implications such as peace-oriented security and unification education based on the ideal of a cultural state; unification education planned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peace; recognition of structural and cultural violence as a foundation for realizing active peace; civic education addressing political and economic equality; and the pursuit of Hongik Ingan (benefiting all humankind) grounded in the Daedong (Great Unity) ideology.

Key Words : Kim Gu (Baekbeom), *My Wish*, Cultural Thought, Peace Thought,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 논문투고일 : 2025년 10월 31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5년 11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11월 13일